

#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보호자 경험을 중심으로

(사)올타리넘어

2021 작문연구 아늑한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 발간사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삶의 방식의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며 마을 곳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활동가와 실무자들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역센터로 요구되고 지향해야 할 사업을 시군 활동가들의 의견과 시군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21년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 정책연구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들인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작은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플랫폼, 시민자산화, 돌봄, 네트워크 진단,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9개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과 활동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외부자의 시선,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연구이자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제안된 대안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연구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과 연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균

## 우리를 탐구하는 시간,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

마을연구란 무엇일까요? 당사자들이 마을연구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와는 무엇이 다른지, 마을 연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해 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작다는 것은 또 어떨까요. 상대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도무지 뭘지 모를 것이라고나 할까요? 작은 연구들이 완성되어 보고서가 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으니, 올해의 작은 연구 과정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연구공동체' 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마을연구란 것이 (아직은) 뭘지 모를 것이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탐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나름의 생각을 마을공동체에 알리는 일을 하는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 이란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의 수준과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해당)마을공동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결과가 나오고 외부 평가가 좋게 나온다면, 탐구의 대상이었던 마을공동체에 의미가 없다면 작은 연구다운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 활동가가 연구자가 되고, 연구자가 마을 활동가가 되는 자연스러운 교류와 전환의 과정을 어떤 규격의 틀에 가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 문법들에 얽매이지 않는 마을 연구자의 탄생과 데뷔라는 과정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9개의 연구 결과물들은 기술 방법도 연구 방법론도 다 제각각이 되어 버렸습디만, 대신 마을의 다이내믹함과 마을 연구자의 개성이 나타난 연구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는 더 많아져야 하고,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자유분방하게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마을연구가 무엇인지, 마을연구자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지겠지요. 그 과정을 중단 없이 지원해 나가야겠다는 기획자이자 담당자로서의 바람이자 다짐도 조심스럽게 담아 봅니다. 용기 있게 첫 발을 댄 마을 주민이자, 이웃이자 동료인 '작은연구자' 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기획팀

## 마을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 작은연구자들의 멘토되기

활동가/단체가 자기 활동의 연구자가 되어보는 경험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의제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 가설을 세우고 설계를 만들어보거나 분주함에 놓쳤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등등. 그게 무엇이든 직접 실천하는 분들의 경험은 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멘토의 쓰임새는 연구주제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장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연구를 활동과 찰떡같이 연결시키는 현장 DNA 가득한 결과물을 보면서 다른 시선이 되기보다 “역시, 역시! 살아있네!”를 외치게 돼서 제 본분을 기억하려했던 순간이 더 많긴 했지만 앞으로도 작은연구지원사업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다른 위치성을 가져보는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은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커뮤니티적인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누군가에겐 직업, 누군가에겐 사이드프로젝트 일 수 있지만 활동을 단단하게 해주는 유용한 방식·기술 중 하나입니다. 활동가/단체들에게 이번 작은연구지원사업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오늘의 행동 김희정

마을활동을 기록하는 작은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연구의 연구자들은 앞만 보고 달음질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그 동안 내 아이를 키워준 마을에 감사하여, 어떤 연구자는 자녀의 학교가 있는 마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 시작해보려고, 어떤 연구자는 현재의 활동에서 나아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작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각각 다른 이유로 시작한 마을 연구이지만 연구자들은 마을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은 그 동안 이유를 묻지 않았던 일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옆에 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두 활동가들이며 그 동안의 자신의 활동을 거리두기하며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발견과 성찰을 작은 연구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연구 활동은 마을활동 만큼이나 지난한 작업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많은 수고와 안내가 필요했으며 그 여정을 열심히 걸어오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에게는 작은연구 연구자들의 마을활동과 연구활동을 함께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연구자들의 성취의 경험이 저에게도 또 다른 성취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활동의 살아있는 실체를 담아내는 작은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제도와사람 연구위원 임정현

작은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나 모임을 만나면서 들었던 마음은 '참 순수하다' 입니다. 어떤 개인적 이득이나 단체의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마을을 위해 이렇게 한결 같이 나서고 고민하는 모습이 컨설팅을 하는 저에게도 힘을 받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예산이 그분들의 기획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업의 특성이나 적합성을 위해 사업 진행 전 교육이 조금 필요한 듯합니다.

예산, 결과보고에도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번기에 하는 사업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넘 힘든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한기 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열심을 더 낼 수 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적은 예산에 이런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상상연구소 지금 협동조합 이사장 정상민

지난 3개월 동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모한 작은연구지원사업에 자문역할로 참여하면서, 하남시 공익활동가협의회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 교육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마을공동체의 관점과 형성으로 접근하고 해결해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남시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행정의 열악한 지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활동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하남시공익활동가협의회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장 활동의 한계와 짧은 연구기간에도 한 땀 한 땀 충실한 연구과정을 거쳐 효능감 높은 결과물을 만든 과정은 어떠한 말로도 칭찬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연구를 주도한 주록리 마을공동체 노루목향기 어르신들의 연구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지역활동 경험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 더욱 빛나는 마을 돌봄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작은연구지원을 통해 마을현장에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향유하는 당사자로, 마을 연구과정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역량이 발휘되길 바래 봅니다.

### 강동로컬랩 사업단장 류양선

#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보호자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사)  
오타리  
노어

연구원들은 20대, 10대의 자녀를 마을에서 잘 키운 경험이 있는 여성 보호자들입니다. 20대 자녀를 둔 연구자가 마을에서 아이 키운 경험을 연구하자는 제안에 20대, 10대 자녀를 둔 두 명의 연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연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구 보조원은 마을에서 자란 20대 청년이 함께 하기로 해서 전체 팀이 구성 되었고 역할을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 연구목적

마을에서 아이를 잘 키운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마을에서 서로 도와 키우는 과정에 대해 알고자 한 것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마을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조사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찾는데 있습니다.



## 연구경과

2021. 1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상호작용과  
마을 내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고민 시작

2021. 3

3.23-26 여나래 밴드(SNS) 활용 공동연구자  
모집과 확정

3.27 안산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작은 연구사업 대상이 아님을 확인

2021. 4

4.9-16 안산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개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작은 연구사업 신청

여나래 밴드, 지역아동센터 졸업생  
학부모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 활용  
청년연구원 모집

2021. 5

5.1-31 연구수행계획서 자문과 제출

2021. 6-7

질적 연구 방법과 분석 교육  
(연구 질문지, 면담지침 포함)

지역아동센터 교사회 연구참여자 추천과  
인터뷰 진행(최종 연구참여자 9명)

연구 방법, 자료 분석 내용 등에 대한 멘토링 총 4회 진행

2021. 8

8.11 센터 교사회와 공유회

8.12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중간보고회

8.26-31 보고서(안) 연구참여자, 교사회,  
전체 연구원 등 보고서 내용 의견청취

8.30 연구 보고서 자문 컨설팅

2021. 9

8.5 연구 보고서 제출

2021. 10

연구 결과 마을 보고회

##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조사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 참여나 마을 활동 경험이 있는 보호자 9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연구 결과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양육경험'과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양육경험'은 '보호자-교사간 협력을 통한 돌봄공동체',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한 배움'으로,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자녀돌봄에서 마을돌봄으로 확장', '함께 돌봄'을 통한 돌봄의 분배, '마을이 안전한 울타리가 됨' '마을공동체가 사회 경험의 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센터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창구 역할을 하며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회 경험을 쌓게 하고 보호자들에게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를 실천할 방안이다. 첫째, 돌봄기관의 공동체 지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적, 자발적, 민주적(자치적) 운영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교사, 보호자의 지속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공동 교육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체적으로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운영 구조로 교사-보호자, 보호자간 소통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나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활동이 기존에 단체 중심이었다면 소규모 취미나 학습 소모임, 모든 생애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와 셋째는 관계망을 넓히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을 #아이키우기 #마을 돌봄 #양육경험 #마을공동체 #지역아동센터

---

## 서론

---

### 울타리넘어 이야기

마을공동체 울타리넘어 관련 연구  
마을공동체 울타리넘어

---

###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윤리적 고려

---

### 연구결과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양육경험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

---

### 결론 및 논의점

# 서론

개인화된 사회에서 보호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 없고 두려움까지 느끼곤 한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라는 과정 내내 주변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스스로 학습을 통해 돌보기, 교육하기 등에 대해 배우며 아이를 키운다. 아이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마을, 학교, 사회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보호자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돌봄 정책을 만들어 성장단계에 맞는 돌봄이 되도록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야기 되며, 개인화 된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을공동체가 지향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개인이 지속할 수 없는 활동을 공동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여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마을공동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공동육아다. 공동육아는 개인적 돌봄의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는 운동이다. 공동육아는 보호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좋은 돌봄을 생산하는 형태이다. 이런 점을 활용한 정책이 육아포켓이,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책들이 대체로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돌봄의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 가족 중심으로 아이를 돌보면 맞벌이 중의 한 명은 휴직이나 퇴직을 하기는 물론 조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아이들은 보호자 퇴근 시간까지 여러 사설 학원을 도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정책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체계가 마련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수요자(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 연계 위주의 돌봄은 한계가 있다. 늘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가능한데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돌보는 보호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말하는 온종일돌봄체계를 보완하는 좋은 사례가 안

산시 일동에 있다. 마을과 교류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해 온 주민들의 경험이 그것이다. 주민들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육아를 통해 마을에서 돌봄을 하고, 초등학생 시기에도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 공동체를 지향하며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마을 사람과 관계 맺으며 아이를 키워 온 양육 경험이 주민 개인 성향이나 사회 환경의 영향,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공유되지 못하거나 중단되곤 한다. 이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른 사회 구성원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마을에서 공동체를 지향하며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과 함께 아이를 키운 사람들의 사례를 볼 때, 일차적 해결 과제인 아이 돌봄을 하며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는 과정이었다. 즉, 지역아동센터에 등원하며 다른 보호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 모든 경험은 자녀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신도 함께 성장하며 마을공동체에 의미를 가지게 했다. 연구자들은 마을에서의 양육 경험을 통해 주체적인 돌봄 보호자로서 아이 돌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마을공동체와의 관계로 확장되며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에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 조사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마을에서의 양육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보호자의 경험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다양한 마을공동체 확장과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 돌봄이 지속하고 유지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는 마을에서의 양육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 경험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자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 연구참여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라포가 형성되고 그 현장을 잘 아는 연구자가 연구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마을공동체 연구 중에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를 검토하고 심층 면담을 하였다.

1 정책위키 <https://www.koreac.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 울타리넘어 이야기

## 마을공동체 울타리넘어 관련 연구

이근미(2019)는 마을공동체 지속 가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울타리넘어(이하 울타리넘어)를 하나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공동육아는 아이들이 성장하면 활동이 중단되어서 마을로 확장되지 못한다. 하지만 울타리넘어는 공동육아 졸업 이후에 초등돌봄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운영하여서 공교육 안에서 부딪히는 한계점 극복을 도모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이근미, 20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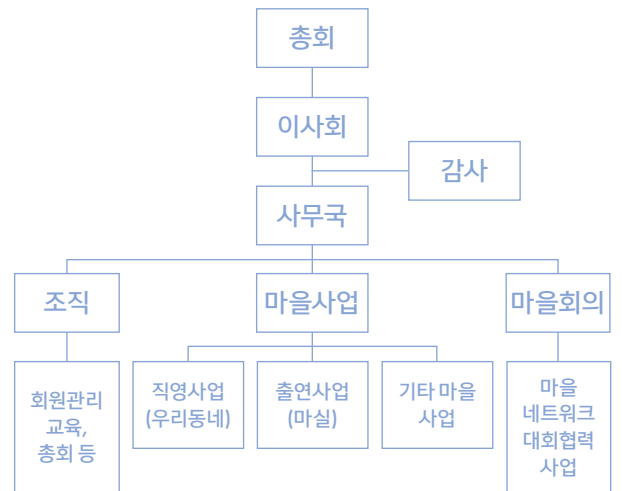
김기영(2016)<sup>2</sup>은 공동육아는 무엇이고,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육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육아 경험을 연구하였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마을 속에서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그 무엇’이 되기 위해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마을공동체의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마을과 공동체(울타리넘어와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일동에 이사하게 되고, 공동육아 졸업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구성원,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있으며, 공동육아가 마을공동체의 희망이 된다고 보았다.(김기영, 2016:226-227)

위의 두 연구에서 공동육아 경험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공교육 한계<sup>3</sup>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 것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지속 확장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에서의 양육경험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의미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동육아 경험을 한 후에 마을에서 양육 경험을 가지게 된 보호자의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마을공동체 울타리넘어<sup>4</sup>

마을공동체 ‘울타리넘어’는 공동육아 조합원들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초등 돌봄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부모들은 협동하여 2006년부터 방과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를 위해 이웃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마을 사업과 활동을 하였다. 그 안에 여러 모임이 만들어졌고, 마을에 있는 모임과 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15년에는 마을사람들과 협동조합 <마실> 카페를 만들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며 더 다양한 마을단체와 교류하며 마을사업을 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울타리넘어 조직도 (출처: 울타리넘어 사무국, 2021)



‘울타리넘어’의 활동 과정을 시기별(이근미, 2019, 울타리넘어 2018<sup>5</sup> 재인용)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울타리넘어 결성초기(2006-2009)이다. 2005년 초등 돌봄을 고민하는 일곱 가구의 수다모임을 통해서 울타리넘어가 결성되었다. 이후 ‘우리동네방과후’를 부모협동으로 운영하였고, 2007년에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였다. ‘우리동네방과후’가 기존 공동육아 졸업조합원의 자녀들 중심으로 돌봄을 했다면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는 교류가 없었던 마을 사람들(보호자들)의 자녀들로 돌봄 대상이 더 확대되었다<sup>6</sup>. 이근미(2019)는 2007년에 ‘우리동네방과후’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 국가의 공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공동육아와 함께 마을 돌봄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시기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가 국가 지

<sup>2</sup> 안산시 일동에 있는 공동육아 6년 차 졸업 조합원

<sup>3</sup> 공교육의 한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대체로는 주로 교실 안에서 하는 지식 습득 위주의 수업과 교육과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위계적 학교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sup>4</sup> 현재 (사)울타리넘어는 울타리넘어에서 시작되었다.

<sup>5</sup> 안산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8년 작은 연구사업 ‘함께 맞는 바’ 보고서(비공개)

<sup>6</sup> ‘우리동네방과후’는 반지하방 한칸에서 시작하였으나 3번의 이사를 거쳐 현재의 공간을 2009년 보호자들이 힘을 합쳐 매입하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큰 공간(정원 43평)이 마련되었다.

원을 받아 교사급여, 재정 등 운영이 안정되고, 함께 활동하는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동육아를 위해 마을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학부모 모임, 엄마모임, 아빠모임 등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로 분화되며 마을 사업을 하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 동네촛불<sup>7</sup>을 진행하면서 함께 느끼고 겪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거점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확장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본다. 2015년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공간 협동조합(마실) 카페를 개소하고, 마을활동가가 배치되었다. 협동조합(마실) 카페는 동네 촛불을 통해 아프지만 함께 어울릴 이웃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더 많은 지역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거점공간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협동조합(마실)카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의 힘으로 건물을 구매하였다. 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 카페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마을 사업, 성인 및 아동 활동 등에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김철중·유석환, 2017). 2016년에는 일동의 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일동동네 주민협의회 구성, 울타리넘어 구성원의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활동 참여 등으로 활동이 마을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이다. 협동조합(마실) 카페는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고 자생적 마을경제 생태계 조성 및 시민자산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협동조합(마실) 카페 공간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 마을의제나 사회이슈 관련 활동을 하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다. 울타리넘어는 협동조합(마실) 카페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울타리넘어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지향과 특성

울타리넘어<sup>8</sup>가 곧 '우리동네방과후'였던 시간이 있다. '우리동네방과후'는 '내가 아니더라도 오며가며 나의 아이를 알고 함께 키워줄 믿을만한 동네 어른'이 필요하다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내용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의 등원 상담을 위한 보호자<sup>9</sup> 상담지를 보면 가치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센터 2021년 보호자 상담지의 내용은 센터의 지향과 운영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의 지향점은 첫째, '이웃이 서로 만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이다.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체적으로 다양한 보호자 참여 활동에 참가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한다. 상세 내용으로 학년별 방모임(보호자모임)이 있어서 학년별 대표 보호자를 중심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센터 보호자 전체 일정으로 전체 보호자회의, 보호자교육, 대청소, 김장, 송년회, 졸업식, 기타 대소사 등이 있다. 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단체 및 주민들과 연계 사업을 모색하여 센터가 마을행사로 진행하는 나눔장터, 마을축제 등 때때로 달라지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초기 등원 상담 시 보호자에게 강조되어 안내되고 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엄마, 아빠인 경우는 보호자 모두 참석할 것을 당부하여 역할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별, 인종, 계층, 연령, 장애 등 차이를 넘어 차이를 인정하고 처지와 조건에 맞는 참여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자연과 인간이 함께 건강해지는 먹을거리를 먹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재료로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식품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굳건해질 하지 않을 것과 용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정하여 실제 실천이 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체험을 중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자연과 지역사회로의 나들이를 다니며, 교사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자기의 표현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다양한 견학과 관람, 여행으로 현장체험을 중요시하기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째, 몸과 마음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놀이를 지향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쌓기 위한 활동을 한다. 센터는 놀이는 아이들에게 밥과 같은 생명활동으로 보고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놀이시간을 보장할 수

<sup>7</sup>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일동에서는 감정 어찌할지 몰라 우선 함께 모였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함께 촛불을 들고 동네를 행진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동네 촛불은 일 년 반 가량 지속되었다(울타리넘어, 2018)

<sup>8</sup> 울타리넘어의 목표는 '내 아이를 내 아이를 더불어 키우자'이다.

<sup>9</sup> 우리 사회의 아동의 보호자는 조부모, 한부모, 위탁부모 등 다양하다. 현재 부모라는 단어는 차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센터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있도록 시간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약속시간과 관련이 있다. 2016년부터 전체보호자회의를 거쳐 사교육은 센터가 끝난 시간에 배우기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저녁 급식 시각인 5시 이후와 주말에 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의 자발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교육은 흥미, 배움, 참여, 만족도가 낮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과 진행, 평가의 중심에 서도록 활동을 기획한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기획한다. 또한 센터가 운영되고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아이들 연령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방학 설거지, 화장실 청소, 정리정돈, 방청소, 급식당번 등 아이들 연령대에 맞춰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위의 지향을 포함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나 심의는 교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최종 결정은 전체 보호자회의에서 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학년 보호자대표가 참석하며, 운영위원장은 학년별 보호자 대표 중에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교사와 같이 보호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센터 운영 내용을 고민하고 논의하며 결정한다.

울타리넘어(2018)의 13년의 성과 중 “2018년 동네를 오며 가며 알고 있는 동네 어른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쉽다. 우리 아이가 동네 어딘가를 늦은 시간 배회하고 있다면, 혹은 있지 않아야 할 곳을 헤매고 있다면 지나가는 동네 어른에게 곧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으니 말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센터와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연구방법

##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여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마을에서 3년 이상 양육 경험이 있고, 보호자 참여 활동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보호자로 하였다. 선정기준에서 고려한 것은 다양한 양육 경험을 알기 위해서 양부모와 한부모, 자녀 수, 직업 유무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험도 포함하였다. 또한 초등돌봄 이전에 마을에서 양육경험이 있는 공동육아 경험도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은 지역아동센터 교사회에서 13명의 보호자를 추천받아 양육 특성을 고려하여 9명을 선정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3명의 연구참여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연구참여자 3명을 재선정하여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심층 면접 자료를 주된 자료로 했고 그 외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 면접은 더 포화된 자료를 얻기 위한 면담 유의사항을 고려하며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1차 심층 면접 진행 후에 예비분석을 하여 공동연구원 회의와 자문을 통해 인터뷰 방법이나 질문 내용을 조정하고 이후 면접에서 보완 조사하여서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인 공동체 카페나 자택에서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보조 자료는 심층 면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울타리넘어 또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유한 기록물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에 의한 귀납적 주제분석을 하였다.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제들을 필요로 하여서 연구질문과 연관된 연구방법 중 하나의 연구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질문이 연구방법에 따라 재구조화되어야 연구의 질이나 엄격성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연구로 다양한 연구방법의 접근 방법들을 관통하는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것에 근거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선택하였다(김인숙, 2016. ;99-101 재인용). 공동연구자 각자가 연구참여자별 면담 기록을 여러 차례 읽으며 의미분석을 하고, 연구원 회의를 통해 각 연구 참여자별로 특징을 공유하고 의미분석 내용을 모아서 패턴 분석을 하고 범주화하였다. 연구 컨설팅을 통해 분석된 내용은 검토하고 조정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와 연구 지지집단이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회에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 윤리적 고려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후에 연구 참여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 연구자들은 인터뷰 전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함에 따라 연구참여자 별로 두 번 이상의 동의를 구해 자발적 참여자에 한해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면담 시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연구동의를 받아서 인터뷰 녹음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물이나 녹취록 작성에 있어 연구참여자의 이름 등 특정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익명 처리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전업주부도 직업이나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에 직업이 있는 것으로 작성함

	보호자	육아형태	직업여부	자녀수	센터이용기간	공동육아경험
연구참여자 1	부	양부모	○	다자녀	3년	유
연구참여자 2	부	양부모	○	2명	5년	유
연구참여자 3	모	양부모	○	다자녀	7년	유
연구참여자 4	모	한부모	○	다자녀	6년	무
연구참여자 5	모	양부모		2명	6년	무
연구참여자 6	모	양부모	○	1명	6년	유
연구참여자 7	모	양부모	○	1명	3년	무
연구참여자 8	모	한부모 (결혼이민자)	○	2명	4년	무
연구참여자 9	모	양부모		다자녀	9년	무



#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결과에서는 찾아진 범주를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양육경험

“옛날 우리 마을들은 밥을 굶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다 먹이고, 잘못하면 동네 어른 누구라도 꾸중하고, 위협하면 보호하며 같이 키웠습니다. 내 아이를 넘어 우리 동네 아이들을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키우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2021년 보호자 상담지에서

### 1. 보호자-교사간 협력을 통한 돌봄공동체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 주체는 공간에 따라 다르다. 가정 내에서는 보호자, 센터에서는 교사가 돌보는 주체이다. 그러나 공간별 주체가 한 공간에서만 돌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어느 한 공간에 있다고 하여 다른 공간에서의 의미나 생각들이 전부 사라지지 않고 넘나들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공간 속의 돌보는 주체 간 협력의 정도에 따라 아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보호자, 교사간 소통를 통해 아이에 대한 이해확장

센터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고 돌봄의 주체는 교사이다. 또다른 주체로는 다양한 환경 속에 돌봄이나 교육 가치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센터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일상이 시시콜콜 궁

금하다.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등 어디서든 아이에 대해 알고 싶다. 센터 교사들은 보호자 상담과 방모임을 통하여 직접 대면하며 아이들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고 SNS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날을 보내고 있는지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소통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2, 4, 8은 보호자-교사 간 소통으로 보호자들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 속에 잘 있음을 느끼며 만족하고 아이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본다. 보호자와 교사의 소통은 보호자에게는 아이의 색다른 면을 알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모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걱정을 해소하고 보호자-교사 간 공동 대응을 하며 일관성 있게 아이를 돌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보호자를 통해 아이 자신의 일상을 지켜봐 주는 보호자를 든든하게 생각하며 안정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러는데 “어머님은 이제 근데 이렇게 잘 해결됐어요.” (중략) “이제 저 퇴근하고 나서 ○○ 만나가지고 상담도 많이 했고, 예 ○○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여기 앞에서 저기 놀이터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어 진짜 선생님들 때문에 진짜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특방에 많이 올리고, 밴드에 애들은 막 어디서 활동하는지 사진도 잘 찍고 올려

【표 2】 연구결과

범주	하위범주	내용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양육경험	부모-교사간 협력을 통한 돌봄공동체	부모, 교사간 소통를 통해 아이에 대한 이해확장 부모들의 참여가 마을활동 참여로 이어짐 부모들간 소통기회로 자기돌봄 경험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한 배움	아동의 자기주도적, 체험중심적 활동을 통해 자율적 주체로 성장 수평적인 관계 형성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	자녀돌봄에서 마을돌봄으로 확장	지역아동센터를 매개로 마을활동에 참여함 마을활동을 통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함께 돌봄’을 통한 돌봄의 분배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품앗이 돌봄 함께 돌봄으로 부모들에게 시간이 생김
	마을이 안전한 울타리가 됨	지리적 생활공간 공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이웃간 촘촘한 관계망이 울타리가 되어줌 보호해 주는 어른이 마을에 있음
	마을공동체가 사회 경험의 장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학습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됨 (소통과 교류, 협력)

주고, 제가 모르면 선생님 직접 통화하고 얘기해 해주고 설명해 주고.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어느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사진도 계속 올리고. 정말 좋아요. 회사 다니는 시간에 여기 들어가서 볼 수도 있어요. 걱정이 많이 없어요. ◆참여자 8

### 보호자들의 참여가 마을활동 참여로 이어짐

센터의 지향은 마을공동체이다. 그래서 센터 내에서는 보호자도 센터 운영의 주체로 공동 활동을 한다. 학년 방모임이나 전체 보호자회의를 통해서 또래 보호자나 또래 아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보호자와 학습의 기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아이나 보호자가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창구의 역할을 한다. 보호자들이나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동네 행사를 만들 수도 있다. 즉, 보호자나 아이들은 참여할 의지와 여건만 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시공간과 관계가 마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1, 2, 3, 4, 5, 6, 8, 9는 센터와 센터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통해서 마을 활동<sup>10</sup>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마을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모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일례로 연구참여자 4는 한부모로 긴 시간 일을 하며 세 아이를 돌봐서 자녀의 교우관계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 그러나 자녀가 좋아하던 동네 마실<sup>11</sup>로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아빠모임에서 하는 아빠들살이가 아빠와 아이만의 첫 여행이 되었다고 한다. 아이가 아빠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빠와 관계가 긍정적으로 되었다고 본다.

아빠가 맨날 늦게 오고 무뚝뚝하고 그런 상황이라 보면 별로 애들에 대해서 자상한 건 없어요. 아빠랑 그런 게 없으니까. 아빠가 늦게라도 와가지고 간거예요. 아빠가 가서 늦게라도 놀아주면서. 아빠가 차에 대해서는 빠삭하잖아요. 차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들고 그니까 그 모습을 본 거지. 아빠의 새로운 면도 보면서. (중략) 그래서 요즘도 아빠가 뭐 차박할래? 그러면 긍정적이예요. ◆참여자 5

자녀가 센터를 졸업한 이후도 관계를 이어가고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에 살고 있기에 언제든 만남이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계기가 주어지면 마을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면은 연구 참여자 9에게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9는 센터 졸업 이후에도 동네 모임, 카페 마실 개소식 등에 참석도 하고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고 아빠는 아빠모임에 참여한다. 이는 센터를 통해서 시작한 마을 활동 참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사례이다.

딱히 어울리진 않고, 한 번씩 이제 모임 같은 거 사모님들(동네사람)하고 다니고. 그쵸. 마실. (카페)마실 있으니까 처음에 여기 생기고 화환도 갖다 주고. 그래. 아이들 다 졸업했어도, 그냥 김치 ○○한테 얘기해서 가져다 먹고, 돈 주고. 협조해주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공부방에다가. (중략) 그냥 아이들도 졸업하고, 그냥 전화 오고 하면, 이제 아빠 모임 이제 다니고. ◆참여자 9

### 보호자들간 소통기회로 자기돌봄 경험

돌봄의 주체인 보호자들은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 보호자간 다양한 소통의 기회는 정보 소통이상의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다른 보호자의 경험을 공감하거나 본인이 공감 받으며 서로 지지되며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또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을 치유할 수도 있고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차성란(2019)은 마을공동체에 거주할 때에 가능한 자기 돌봄을 적극적 자기돌봄과 소극적 자기돌봄으로 나눴다. 적극적 자기돌봄은 돌봄 자원 교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소극적 자기돌봄은 친숙한 환경, 친밀한 관계가 핵심요소로, 자기가 살고 있는 친숙한 마을, 그 마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 자기돌봄은 ‘잘 살아가기’의 가능성을 좀 더 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사례는 도보권 내의 마을에서 살며 자녀가 다니는 센터에서 출발하여 마을까지 이어져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보호자들의 자기돌봄이다. 개인화된 도시 생활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연스럽게 접하는 보호자간 교류가 자기돌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1, 2, 8, 9는 보호자가 만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으로 친구도 만들고, 재미있는 만남과 대화로 자기돌봄을 하며 ‘잘 살아가기’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 8은 결혼이민자이며 혼자서 아이를 돌본다. 비록 둘째 아이가 어려서 센터의 보호자들의 공동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편이지만 센터 활동 참여나 보호자 교류는 타국의 소통 통로가 되고, 스트레스 해소나 외로움도 덜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빠 모임이나 이런 거 모여서 뭐 하고 이런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아이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일동에서 아빠들끼리 들살이를 아이들 데리고 간다던가 원래 마을행사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대청소도 했었고 김장도 했었거든요. 뭐 힘든 거보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참여자 1

일단 이사 왔고, 전학 왔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도움이

<sup>10</sup>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했던 마을활동은 아빠모임, 아빠모임에서 주최한 아빠 들살이와 어린이날 행사(체육대회포함), 엄마모임 예니레, 식물원마을행사, 동네성년 무지개마트 살리기 행사, 세월호 행사, 마을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등에 참여했다.

<sup>11</sup>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마실은 방언으로 나온다. 여기서 이웃집이나 가까운 곳에 가볍게 놀러간다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되는 거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그 안에 이제 부모 모임,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만들었던 또 아빠 모임, 엄마 모임 뭐 이런 게 있었고, 어린이날 프로그램이 있었고, 막 이러면서 빨리 동화가 될 수 있고 빨리 친구가 부모도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고 아이들도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던 계기이죠. (중략)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 그냥 속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를 생각해서 봤던 거는 이 공동체와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2

작은아이가 있으니까 주말 청소 그런 거는 많이 못 도와주고 좀 미안한데 근데 김장 김치, 그거는 많이 와서 매년 마다 같이 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중략) 아버지랑 애들이랑 축구도 같이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끔 맥주도 같이 마시고.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 만나서 대화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8

## 2.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한 배움

센터가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자율성, 자발성, 주체성에서 비롯한 민주적 운영원리를 포함한다. 센터의 주체는 교사, 아이, 보호자가 있다. 보호자는 주체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보호자 공동 활동과 마을 활동 참여를 하여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열리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센터 방침의 발현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연구참여자 1, 2, 4, 5, 6, 7, 8, 9는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아동의 자기주도적, 체험중심적 활동을 통해 자율적 주체로 성장

#### ①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 주체로 성장

UN아동권리선언에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고 양육될 권리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하고 있다. 센터에서 아이들이 발달 기회가 만들어져서 참여하며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하고싶은 활동을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하고싶은 활동을 제안하면서 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에 따라, 시작부터 평가까지 하나의 활동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느끼고, 참여하게 된

다. 이 경우에 또래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은 활동 사회를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의 분업화가 이루어졌기에 온전히 하나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아동 일 때 어떤 하나를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눈을 넓히고 힘을 줄 것이다. 연구참여자 1, 2, 4, 5, 7, 8은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이며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며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이들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또, 아이들을 잘 지원해 주는 교사에 대한 신뢰도 커진다.

예를 들면 5명 이상 모이면 교사가 그것을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는 뭔가를 스스로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것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내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해보면서 주도적인 것 혹은 자기의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게, 놀이도 그렇고 나들이도 그렇고. 어떤 무언가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죠. (중략)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들이, 또 이제 고학년이 되면 더 넓어지잖아요. 여행도 스스로 기획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졸업여행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논의하여 음식 선택을 하고 조리해서 판매를 하면 센터 보호자나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구입한다. 아이들은 판매 수익을 남겨 졸업여행비로 사용한다.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의 여행 계획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비용을 만드는 과정을 논의하고, 분업하여 협업하고, 판매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교사들의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간섭 없이 진행된다. 한 과정을 예로 들면 반찬 판매를 위한 홍보와 감사 인사를 위한 안내지를 만들어 아이들이 동네 카페에 안내지 게시를 요청하고 교사는 가입해 있는 SNS에 홍보하여 주문을 받고 조리하는 날 구매 반찬을 받아가는 형식이다. 아이들은 그 긴 과정에 자발적, 주체적으로 자율적인 내용을 만들어 참여하게 되므로 아이들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활동은 운동화 빨기,

돈까스 만들기 등이 있었고, 2021년은 소세지볶음, 무말랭이와 진미채무침이다. 참여자 4의 자녀가 참여했을 때는 졸업여행비를 위해 돈까스를 만들어 판매했다.

(졸업여행을 위해 아이들이) 같이 음식 만들어서 돈까스나 이런 걸 만들어 판매했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본인들이 해가지고 팔아서 그 수익금 갔다가 본인들이 놀러도 가고, 뭘 했다는 거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 같더라고요. ◆참여자 4

## ② 자연친화적, 체험중심적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 주체로 성장

공동육아를 포함하여 영유아기의 자연 친화적 체험 활동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고 있다. 자연 속의 인간임을 느끼며 자연과 공존하는 사람으로서 배워가는 다양한 생물, 땅, 물, 공기와 자연 친화적인 체험 활동을 생태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미란(2016;27 재인용)은 공동육아의 생태주의는 “자연과 인간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유지,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동육아 생태교육은 나 중심, 또는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자연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다.

영유아기와 달리 아동들의 자연친화적 체험 활동은 일상 보다는 어느 날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인 센터는 일상적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체험 중심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율적 주체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지지하고 있다. 센터 보호자인 연구참여자 1, 4, 6, 7, 8은 자연 친화적이고 놀이 위주로 다양한 체험과 경험 활동을 함에 따라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참여자 6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센터 활동에 굉장히 만족하였다.

먹놀이 활동 피아노 타악기 종류 중에서 봉고 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미술 치료 교사 와서 미술 치료 경험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다양했어요. 숙제 봐주는 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학습도 있었지만, 학습에 치중되었다기보다 그냥 밖에 나가는 거나 밖에 놀이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 저런 것도 해?’ 하는 것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연말에 동네 마을 잔치처럼 하는 것도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중략)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참여자 6

연구자 7의 자녀는 센터에서 약속한 것, 재미있게 놀거리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 센터에 꼭 가려고

한다. 아이는 예민한 피부를 가져서 고생하지만 센터에서 산에 가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고도 말한다.

“방과후를 왜 이렇게 가려고 해?” 그랬더니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언니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야 하고 그리고 요즘에 작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게 12월에 책이 나오잖아요. (중략)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산도 가야 되고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면 막 이렇게 물리고 하는 게 공포인 거야 애한테는. 한번 물렸을 때 다른 애들은 그냥 굽고 끝나 버리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프고 싫었던 기억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지. 근데 가면 또 재미있게 노는 거죠. 가면 재밌긴 한데 이제 산에 가면 나방과 모기와 이런 게 싫어서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산에 가자고 그러면 절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뒷산에 간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친구들이랑 다 어울려서 가니까 갔다 와서는 이제 한 달 고생해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참여자 7

연구참여자 8은 아이가 곤충을 귀엽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다. 센터의 자연친화적 활동은 도시아이들이 곤충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해 아이들이 곤충도 공존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게 한다.

네. 애들은 곤충 그런 게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징그러워서 못 만지는데. 근데 여기 애들이 자연으로 키우나 봐요. 그런데. 공원 같은데 많이 데리고 가서 가르쳤어요. 아 그런(곤충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게 가끔씩 있었어요. 막 사마귀 그런 게 귀엽다고 데리고 와요. 자연에 나가서 곤충 같은 거 보고 친구도 많이 있고. 숙제도 하고. ◆참여자 8

## 수평적인 관계 형성

민주적 운영방식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작한다. 센터 교사회는 ‘아이들과 교사는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 맺음’을 2021년 보호자 상담지에 안내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의 권위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교사, 아이 모두 책임성 있는 행동과 말을 하여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아이들 간에도 학년이 높다고, 힘이 세다고, 좀 더 많이 안다고 등등의 수평관계에 균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자율적으로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서로 배려하며 협동하고 존중하는 관계 맺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분석은 또래관계, 아동-교사 관계, 보호자-교사관계로 하였다.

### ① 또래관계

센터는 초등학교생들의 활동 장소이다. 친구와 관계 맺는 연습의 장,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1학년은 점심 먹고 바로, 2·3학년은 점심 먹고 2-3시간 정도 뒤에, 고학년은 점심 먹고 3-4시간 정도 뒤에 센터에 들어온다.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학습을 집에서 하고 달려오거나, 학교 온라인 학습시간을 센터에서 맞이하며 등교를 센터로 하는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또래가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특별하게 또래를 만날 수 있는 센터가 아이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공간이다. 또한 보호자들에게는 휴대폰을 가지고 놀거나 혼자서 있어야 하는 시간에 함께 할 친구와 교사, 안정적인 공간과 활동이 있어 고마운 공간이다.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으로 협동심, 배려심, 자기주장, 관계 맺기 등이 좋아지고, 또래들과의 놀이에 즐거움을 느끼며, 어울릴 수 있는 센터이다.

연구참여자 7, 8, 9는 아이들이 또래들과의 놀이에 즐거움을 느끼고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한다.

센터의 아이들은 활동 내용을 기획하거나 함께 지켜야 할 규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회의를 열어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아이들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 회의 과정은 아이들이 갈등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 4의 자녀는 본인의 신체 특성을 말하는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다. 교사가 별도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 회의를 통해서 갈등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했다. 연구참여자 5는 아이가 센터 활동이나 어린이 회의를 통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으나 협동심, 배려심이 생기고 자기 의사를 잘 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교사가 아이들과 회의) 그거 많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했고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단어 이런 것들 서로 만들어서 이런 말은 하지 말자라는 것도 만들고 서로 이제 회의를 통해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차차... ◆참여자 4

여행을 가거나 애들끼리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보면 협동심이 길러지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를 정해지면 서로 분야를 나눠서 또 정하고 팀을 꾸려서 어디를 간다던가 아니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던가 재정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애들이 경험 못 할

것들을,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것들을 하니까 (중략) 그래서 나한테 와서 엄마 이랬어 힘들어 이렇게 말해도 그런 경험이 은연중에 쌓이면서 배려심도 생기고 자기 의사도 생기고. 나한테 말하는 것도 말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지.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의사를... ◆참여자 5

### ② 아동-교사 관계

센터는 교사와 아동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 주체적으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관계 맺기에 합의된 내용이 필요하다. 어느 한 쪽에 압도당하지 않는 서로 균형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칸트가 말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사유를 하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푸코가 말했듯 비판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기에 이러한 관계 맺기를 학습하고 경험한다면 아이들은 어디서든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 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특히 교사에게는 과감하게 포기된 권위와 달리 적절히 아동에게 위계적이지 않으면서도 가르치며 돌볼 수 있는 훈련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센터 보호자들은 아이와 교사와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커서 연구참여자 3, 4, 5, 7은 수평적인 아동-교사 관계를 긍정적으로 본다. 연구참여자 7은 교사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아이가 센터를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교사 어른들은 좀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참여자 3

집중력이 어려서부터 뛰어나서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끝을 보지 않고는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기다려 줘야 하는 거야, 아기 때부터 그 습관을 길러주다 보니까 어딜 가도 그 아이의 행동을 끝까지 기다려 주는 데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이들하고 교감을 하고 아이들 생각을 읽고 똑같은 선에서 '그래 그러면 기다려 줄게'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계속 오고 싶어 하고 그런 거죠. ◆참여자 7

교사들은 아이들의 다양한 상황을 만난다. 아이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그중에 하나다. 수평적 동등한 관계라고 하지만 교사는 이미 그 역할만으로도 상위로 인식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온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로 교사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솔직한 대화를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4, 5는 자녀가 아

이들과의 갈등상황일 때에 솔직하게 교사와 대화하고 교사의 중재 속에 고비를 넘기며 좋아지고 더 자랐다고 말한다.

자기감정을 집에서도 그래요. 내비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들하고도 막 대화도 하고 많이 하고 하니까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중략) 애들이 금지 단어로 하고 또 써놓고 뭐 이제 안 하고 선생님하고도 얘기도 자꾸 하고 이리다 보니까 본인도 차차 좋아진 거 같기는 해요. 그럴 때가 조금 고비였어요. 그때가. ◆참여자 4

언니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선생님하고 의논이 되니까 그때 ○○ 선생님이었거든요. 갈등은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서 애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대화하는 방법이라던가. ◆참여자 5

### ③ 보호자-교사 관계(협력과 신뢰, 바람)

센터 운영은 자치적인 민주적 운영원리를 도입하고 있고, 센터 주체인 교사와 보호자는 민주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년 대표가 참석하며 운영위원장은 보호자가 담당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논의한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전체 보호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원리와 지켜야 할 약속은 보호자 등원 상담 시에 안내되며, 동의한 보호자들이 등원하게 된다. 자치적 운영을 하는 센터의 보호자-교사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편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4, 5, 6, 7, 8은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와 자세,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노력으로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여 만족도가 컸다. 연구참여자 2, 3, 9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 상담이나 아이 생활에 대한 피드백 등으로 지속 소통하는 점, 꿈을 키울 수 있는 정보를 주며 시골 생활처럼 잘 봐주며 안심 보육을 해 준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 3은 부모가 의견을 내면 교사들의 품성이 잘 들어주기에 잘 반영됐을 것 같다고도 말하여 신뢰를 표현한다.

우선은 안심. 안심하고 내가 못 해주는 그런 협동심을 길러줘서 좋았고 애로 인해서 부모 회의에 참가하고 뭐 김장하기 이런 거에도 같이 동참하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애 기르는 엄마들도 만나고 교사들도 옛날 생각하면 선생님 하면 멀잖아요. 근데 나도 어느덧 그 교사하고 편해지고. ◆참여자 5

초등학교 때 개들이 5, 6학년이면 학교 이런 걸 파악을 해주고 ○○도 5, 6학년 때 성적도 오르고. ○○고 가 생겨서, 이제 그래서 이과 가는 게 꿈이고, 그냥 시골 생활로. (웃음) 아이들을 잘 봐주고. ◆참여자 9

센터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중 하나는 사교육을 저녁 급식 이후(5시 이후)와 주말에 배워야 하는 것이다. 2016년 전체 보호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아이들이 활동 중간에 오거나 가게 되면 함께 활동하던 아이들의 리듬이 깨지고, 활동 중간에 나가거나 들어오는 아이들은 한 가지 활동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놀이 시간 보장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센터의 하루일과는 매일 활동하는 시간, 숙제할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센터에서 숙제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사교육을 고민하게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여건이 되면 아이를 위해 사교육 시간도 더 만들고 싶고, 센터에서 아이 학습에 더 신경써주면 하는 보호자 바람이 생기기도 한다.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에 대한 바람이 더 생길 수 있다.

결혼이민자인 연구참여자 8은 교사가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연구참여자 3은 아이 학습에 대해 좀 더 봐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이 특성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집에서 ○○는,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숙제 같은 거 진짜 도와주는 건 힘들어요. 애가 혼자 이거 챙기고 모르면 여기 교사한테 물어보는 거 다행이고 저는 너무 마음이 조금 편하긴 해요. (중략) 예. 여기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엄마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자 8

【그림 3】 센터 하루의 흐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간식							
숙제							
바깥활동							
자유놀이							
몰입/예술							
저녁식사							

딱히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를 좀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웃음) 근데 우리 딸이 워낙 안 하려고 해서 시키기도 힘들긴 할 거예요. 기초가 너무 떨어지니까. ◆참여자 3

보호자들은 센터 운영관련 전체 보호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개인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연구참여자 2, 9는 공부를 시키려고 했으면 학원에 보냈을 것이고 센터는 목적이 다르다고 말하여 센터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연구참여자 7은 보호자가 채워주기 어려운 과목에 대해 사교육 기회가 더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어떤 한 과목이라도 집중적으로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게 했으면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보호자들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3학년에는 즐겁게 놀고 여러 가지 좋지만 이제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주려고 해 주는데 아무래도 방과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습적인 부분에서 못 채워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의 학과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교육의 힘도 살짝 빌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방과후는 사교육 자체를 좀 안 하는 위주의 그거를 정해놓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죠. ◆참여자 7

특별 그런 교육을 안 했고 너무 자유롭게만 놀기만 하니까 그게 또 불안해서 몇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노는 아이가 되어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영혼은 자유로우니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믿고 보내서 보면 맨날 놀기만 하고 놀다가 와서 지친 애를 내가 끌어다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자고. 교육은 걱정되죠. 걱정은 되는데 근데 무작정 또 학원을 다 보내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또 피아노 학원 보냈는데도 아동센터에서 보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중략) 그나마 방과후에서 오카리나, 우쿨렐레 그런 거라도 해서. 거기에서 흥미를 느꼈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한 과목이라도 집중적으로 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과목이라도. 영어면 영어. 그래서 이 아동센터에는 이거를 잘 해야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 반강제적으로, 싫어도 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참여자 5

센터의 2021년 보호자 상담지에 있는 내용이다. “자발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교육은 흥미, 배움, 참여, 만족도가 낮습니다. 아이들이 선택과 진행, 평가의 중심에 서도록 활동을 기획합니다.” 이 내용을 부모들도 알고 있기에 강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서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과 지역사회로의 나들이, 교사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자기의 표현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다양한 견학과 관람, 여행으로 현장체험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쌓고, 놀이가 아이들에게 밥과 같은 생명 활동으로 보아서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놀이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런 교육 과정은 독일의 선행학습을 지양하고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내용이 생각나게 한다.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능력은 창의력이라고 한다.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 변화를 기대하지만, 학습을 중시하는 현실의 벽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사례인 센터는 공동육아를 졸업하고 초등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센터는 공동육아와 같이 200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평어(平語)를 사용하였다. 평어는 존대어가 아닌 반말이며,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공동육아에서 쓰는 반말은 아랫사람에게 하는 반말이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책 읽어줘’ 식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편안하게 주고받는 말이다(심미연, 2007; 정승훈, 2016; 31 재인용).

연구참여자 5는 교사들이 별칭을 사용함에 따라 아이들이 교사 별칭을 부르며 반말을 하는 것이 낯설고 사회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어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정을 겪으며 평어가 단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개선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애들이 반말 하는거 애들이 반말을 하니까 나는 너무 듣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뭐 “○○ 이랬어요.” ○○까지 부르는 건 좋은데 굳이 선생님은 안 붙여도 좋은데 이랬어 저랬어 반말을 하니까 이게 애들이 혼돈이 오니까 (중략) (부모 회의에서) 얘기해봤죠. 얘기해봤는데 선생님 애들 편한 위주로 애들 동등한 위주로 한다니까. 그래서 ○○하고도 얘기해보고 ○○하고도 얘기해보고 ○○하고도 얘기해보고. (센터 방침을) 개인도 고칠 수가 없고 애들도 이미 편해진 상태고 그러니까. (중략)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쨌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면서 이게 더 애들이 이렇게 갈등을 해소할 때

12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평어(評語)로만 등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평어와 다른 의미이다.

선생님 말도 경청을 하고 상대도 경청을 해서 자기 마음을 누그러뜨렸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반말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네. ◆참여자 5

정승훈(2016)은 존댓말을 사용하는 예절 교육에 대하여 “70년대 국가차원에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인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확산시켰다. 그와 더불어 교육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언어 예절 교육은 최상급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만 공손의 측면에서는 무례한 표현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댓말과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어사용법이라는 관념을 주입했고, 이는 오늘날 인성교육법이라는 ‘억압적 국가장치’로 더욱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존경, 공경을 넘어 압도당하게 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무엇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유교문화권이라서 장유유서같이 어른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극존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극존칭 문화는 한동안 소비자가 왕이기에 기업 콜센터의 상담원이 소비자와 관련한 모든 것에 ‘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감정노동과 인권이 이해되며 중심에서 사라졌다. 지금은 특별한 호칭을 하기 어려울 때 이름 뒤에 ‘-님’으로 호칭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처음 만나는 어른과 아이의 평어 사용은 낯설지만, 센터 이용을 하며 이해되어 가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이 ‘그래 그러면 기다려 줄게’라고 하는 교사의 말을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로 이해하고, 연구참여자 5가 센터 내 대화에서 서로 더 경청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것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수평적 관계가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통을 어떻게 하고 서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늘 성찰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효용으로, 한 번의 좋은 결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호작용의 과정이다.<sup>13</sup>

##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

앞에서 센터를 통해 마을참여가 되었음이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은 마을참여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차성란(2019;118)은 새로운 생활문화 운동으로서 마을공동체 돌봄<sup>14</sup>을 보았다. 돌봄 공간이 마을이라는 일상생활 공간의 공유로 전 세대 마을 주민의 참여, 일상생활과 통합된 돌봄이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하며 주민들 사이의 거주 근접성으로 긴급성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요구에 반응하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주민들 사이의 소통기

회로 작용하는 돌봄이 되어 친밀도에 의해 교류가 활성화 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복지시설 내 돌봄에서 돌봄 공간이 마을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며 마을과 공동체를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다양한 관계에서 함께 돌봄을 하며 일상적인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키우는 것이며, 어른과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 경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 1. 자녀돌봄에서 마을돌봄으로 확장

한 가정이 책임지던 내 아이 돌봄에서 동네의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마을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필요한 다양한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마을 돌봄이라 할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를 매개로 마을활동에 참여함

연구참여자 1, 2, 5, 6, 9는 센터를 매개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1, 2는 아빠모임에 참여하고, 아빠모임이 주최한 어린이날 행사 등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사 와서 센터에 아이를 보내며 마을 활동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 많은 아는 사람(친구)들이 생긴 덕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되어서 공동체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보탬이 되려고 마을활동가로 직업 전환까지 하였다. 연구참여자 5, 6, 9도 센터를 매개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마을공동체 초창기 멤버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고, 마을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마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일단 이사 왔고, 전학 왔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그 안에 부모 모임,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만들었던 또 아빠 모임 엄마 모임 뭐 이런 게 있었고, 어린이날 프로그램이 있었고(중략) 마침 제 또래의 부모들이 좀 있어서 우리 또 옆집 사는 친구랑 그래서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끼리 왕래도 좀 하고 이러면서 애가 여유가 좀 생겼어요. 친구도 생기고 또 친구 아빠라는 거 알게 되고 이러면서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아는 체도 해주고 이러니까 어떤 삶에 자신감 이런 게 좀 생긴 것도 있고, 둘째도 일반 어린이집 다니다가 이제 공동 육아를 하면서 자기 만족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마을공동체에서 제안을 받았죠. (중략) 일단 저희 아이들도 지금 잘 안정되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있어

<sup>13</sup> 센터는 본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 2020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서 본 연구가 진행 중인 2021년 8월에 평어 사용을 중단하였다.

<sup>14</sup> 차성란(2019)은 돌봄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기적 구조로 이해하며, 마을공동체 돌봄은 이기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본다.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애들이 안정되는 데까지 마을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내가 좀 그러면 보탬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여기 마을공동체로 오게 된 거죠. ◆참여자 2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위원회 할 적에 안 빠졌던 거. 그리고 뭐 마을에서 올타리넘어하고 마실 카페 시작할 때 계속 있었던 거. 그리고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고. 그리고 그 마실 만들기 전에 여기 공간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인테리어 안 들어가 있어 그때 여기에서 대한학교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거 열었고, 그 외에 무슨 교육 같은 거 기획하면 참여하는 거 있었고, 꽤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막 큼직하게 한다기보다 소소하게 하는 거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엄어 모임 초창기 멤버이기도 했었고.(중략) (마을 활동이)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온도를 올려줬겠죠, 마을의 온도를. 사람들이 서로 간에 관계의 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서로를 어찌 됐든 믿고 만나고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도움을 요청한 적 없어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참여자 6

### 마을활동을 통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인식의 확장은 관심의 확장이고 존재의 확장이며, 실천의 확장이 되어 실체가 된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활동을 참여하는 것은 개인에게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센터를 통해 마을 활동을 시작했고, 마을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또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적극적인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더 좋은 방향의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마을활동을 하며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마을사람들을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생활로 느끼고 있다. 이 또한 자기돌봄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센터 이용 이전에)그때는 오직 육아였죠. (중략) 이제 가면 거의 아는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요즘 활동은 뭐하냐고 이려고 내가 아파도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아 내가 활동을 하니까 이렇구나. 내 생활 풍성하게 해주고 운택하게 해주고 정신이 풍요롭죠. 이런 생활들이. 근데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받죠. 아 나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것도 자극을 받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활동을 해볼까 이런 것도 이제. ◆참여자 5

## 2. 함께 돌봄을 통한 돌봄의 분배

‘함께 돌봄’은 신뢰와 유대가 있는 마을 사람들 간 아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돌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1, 3, 4, 5, 6, 9는 ‘함께 돌봄’에 의한 돌봄 나눔을 이야기한다.

### 보호자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품앗이 돌봄

#### : 보호자가 없어도 동네어른들이 돌봐줌

‘함께 돌봄’의 가장 많은 사례는 보호자 부재 시간에 발생한다. 아이의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다른 보호자가 있는 집에 동네 마실<sup>15</sup>을 가거나 보호자와 아이가 익숙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에서 놀면서 기다릴 수 있다. 또, 다른 보호자와 함께 바깥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 1, 3, 9는 부모가 없는 시간에 마실을 해서 서로 돌봐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연구참여자 3은 큰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끼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이웃에 사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웃이 119 같은 역할을 했던 기억이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마을에서 편하고 안정되게 살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참여자 3의 경험은 유대관계가 좋은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지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마을에서 신뢰와 유대관계를 쌓으며 서로 협조하게 되면 근접거리에서 입체적으로 서로 돌봄이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여 품앗이 돌봄을 할 수 있다.

음. 편안함? 그러니까 이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게. ○○가 지금은 커서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지만, 예전 같이 어렸을 때 1, 2학년 때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었는데, 이제 언니들은 학교에서 늦게 오고,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했을 때. 너 무서우면, 집에 혼자 이렇게 무서우면 마실가 있어. 또는 누구네 집 가 있어. 뭐 이렇게. 어디든 갈 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데 살았으면 이렇게 말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은 (웃음) ○○ 발이 침대에 켜는데, 제가 안산에 없었어요. 근데 침대 꺼서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침대 이 사이에 발이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큰 아이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엄마 ○○ 다리가 켜는데 못 뺀다고, ○○ 울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계신 다른 분한테 전화해

1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마실은 방언으로 나온다. 여기서는 이웃집이나 가까운 곳에 가볍게 놀러간다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서, 저희 집 가서 좀 ○○ 좀 빼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사시는 분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119나 이러면서. (중략) 지금은 그냥 여기에 속에 젖어 사니까, 이게 좋은 환경인지 편안한 환경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이 마을을 벗어나면 아내가 좀 그 마을에서 편하고 안정되게 살았었구나를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3

직장을 다니는 연구참여자 4의 자녀는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갔다. 뿐만 아니라 아빠모임에서 주최하는 아빠들살이에 아빠가 없이 여러 번을 혼자서 참여했다. 아빠들살이는 엄마들의 동행 없이 동네 아빠나 남성 어른이 동네 아이들과 1박 2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일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들은 아이들만 보내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동네 어른은 동행하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함께 돌봄이고 품앗이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아빠가 아닌 동네 남성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바깥 활동이다.

그래도 많이 갔어요. 엄마 누구네 집에 가자고 하는데 가도 돼 그러면은 그 애 엄마한테 허락 받았나 엄마가 좋다 하셨어. 그러면 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다녔죠. (아빠 들살이는) 거의 맨날 매번 갔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는 아빠가 없는데 아빠들살이를 가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아빠가 없는데 괜찮나 그니까는 다른 아버지들이 다 케어를 해주신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한테 물어봤죠. ○○아 너는 아빠가 안 계시는데 다른 애들은 아빠들이 다 같이 오는데 너 괜찮겠어? 그러면은 괜찮다고 이제 또 본인은 이제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 그러면은 네가 좋다면 가 그래가지고 거의 매번 갔던 것 같아. ◆참여자 4

**함께 돌봄으로 보호자들에게 시간이 생김**

위에서 분석한 내용은 아이들 돌봄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결과는 함께 돌봄이 보호자에게는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맞벌이 보호자나 한명의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에 다양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 퇴근이 늦어지거나 아이와 동행 할 수 없는 일정 등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연구참여자 1, 3은 맞벌이 부부이다. 아이가 마실로 안전하게 잘 놀거나 돌봐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해야 할 업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9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마

실을 보내는 경우와 다른 집 아이가 마실 왔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독박육아를 했던 연구참여자 5는 센터 이용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담당해야 하는 돌봄의 공백 시간, 즉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져서 동네에 관심이 생기고 여러 생각할 시간이 생긴 것을 보여준다.

아이들을 맡기고서, 이제 놀러 간다든가. 아 그렇지 남의 집에 놀러 간다든가, 멀리 이제 여행 간다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녀서. 그냥 (마실) 오면 그냥 같이 저녁 먹고, 학교 끝나면 같이 오면 라면 끓여 주고. 놀다 가고. ◆참여자 9

그렇죠. 그때는 오직 육아였죠 애만 쳐다봐야 하고, 그리고 집 관리가 그때는 너무 이제 이사 나가면 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온통 신경이 쓰이고, 친정이나 시댁 일 때문에. 그랬다가 아동센터 보내고 애를 보내고 나니까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나온 안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참여자 5

**3. 마을이 안전한 울타리가 됨**

**지리적 생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한 마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사람들은 어렸을 적 살던 동네에 가면 도로가 좁았는지 몰랐거나 건물이 작았는지 몰랐다고 한다. 즉 어린 시절에는 크게 보였던 것이 성인이 되어 만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한 마을의 범위는 자주 다니는 동네 어느 어귀까지 일 수 있다. 어른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닐 정도의 거리로 일반적으로 1km 정도, 넓게는 1.5km 정도 일 것이다. 즉 걸어서 3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볼 수 있다. 돌봄 장소가 보호자의 집이나 회사와 도보권내의 근 거리에 있다면 안정적인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돌봄을 위해 다른 동이나 타지에서 이사를 왔다. 영유아기 돌봄부터 초등 돌봄까지 비슷한 교육관을 가진 돌봄 공간이 한 동네에 있다는 것은 돌봄을 하는 보호자나 아이들에게 안정적 돌봄을 예측하게 한다. 길게는 12-13년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1, 6은 공동육아를 위해 다른 동네에서 이사했고, 연구참여자 2, 3은 센터 이용을 위해 다른 동네에서 이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9는 도보권이나 센터에서 조금 먼 위치에 살다가 센터 근처로 이사하였다. 센터가 가깝게 있어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언제나 아이 소재 확인이 가능한 것이 좋은 점이였다.

그러니까 이제 옆쪽에 살을 적에.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제 학교 갔다가, 계단 다니는 게 무섭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부방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전화로 꼭 확인하고. (중략) 집에 있을 때는 또 전화 안 받으면 공부방 와서 보고. 무슨 일이, 좀 이상하다 하면 학교도 찾아가 보고. 가까운 게 그게 좋더라고. ◆참여자 9

연구참여자 4, 5, 7, 8은 센터 주변에 살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가 되어 센터를 이용하게 된 것이기에 센터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다. 현재 센터 이용 가정 외에도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대부분 같은 동네의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의 거리로 센터 주변에 살고 있기에 지리적 생활공간이 공유되며 돌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생활공간의 공유는 시간대별 공간 속에 사람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웃간 촘촘한 관계망이 울타리가 되어줌  
관계망의 크기와 밀도의 변화: 이웃간 교류와 소통**

마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공동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시간보다 더 빠를 것이다. 또한 유대관계를 맺는 인원은 마을 사람들 간 접촉면이 넓을수록 늘어날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공동육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센터와 센터를 매개로한 마을활동을 하며 더 폭넓게 마을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은 시간이 길어지며 더 친한 관계가 되면서 아이 돌봄이 이웃들과 서로 협조 되고 있다.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아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기란 마을 사람들의 관계망이 촘촘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한다.

저희 1학년 아이가 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학교 조치가 나오는데 저는 학교에 있어야 하고 엄마도 학교에 있어야 하고 이리다 보니까 그때도 방과후라던지 이웃분들이 흔쾌히 받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마을에서 키운다는 것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중략)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친구를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오다 가다가 정말 이모 삼촌 16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제 정말 친한 위치까지, 놀러갈 수 있는 이러면 되게 편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중략) 저희 아이들이 몇 번 길 잃어버려도 아는 분들이 다 나타나서 연락을 주시

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전할 수도 있고. ◆참여자 1

**보호해 주는 어른이 마을에 있음**

보호자가 아이들 주변에 늘 있을 수는 없다. 영유아기에는 손 붙잡고 다니며 돌봐줄 수 있지만, 초등학교가 되면 등하교길, 친구 집이나 센터 등 목적인 곳에 가는 길, 아이들의 놀이 공간인 놀이터, 골목, 가게 등등 동네 어디든 혼자서 다니는 연습도 필요하며, 독립적으로 다닐 수 있는 시기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위험이 널려 있으나 온실 속 아이로만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성인이 되려면 독립적,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1, 5, 6은 이러한 지점에서 함께 돌봄의 공간을 마을로 확장해 준다. 동네에서 길가다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이나 아는 마을 어른들은 관심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인사하며 지낸다. 이것은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 분석결과와 연구참여자 1의 이야기처럼 어떤 위급상황이나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보호해주는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애들 키웠을 때 애들이 어디에서 나쁜 위협적인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아는 사람이 가서 “어 ○○아” 하고 불렀을 때 그 애가 얼마나 안심이 돼? (중략) 만약에 우리 애가 탄데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 저거 ○○인데? 어? ○○아” 하면 자기도 이제 양심에 찔리겠죠.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를 잘하게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인사를 잘한다고. (중략) 그래서 이제 사람을 오래 보고 이게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 애들도 몸가짐을 좀 조심하게 되고, 또 말을 함부로 안하고 나도 오랫동안 본 애들은 인사를 하고 좀 안 좋은 행동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쓰레기 버리지마 침 뱉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서로 보호를 해줘. ◆참여자 5

이상할지는 모르겠는데 동네 지나다닐 때 아이가 인사할 사람이 있는 거. 관계가 없어도. 그러니까 막 친하지 않아도 아이가 사실 내가 애를 안전하게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뭐 일부러 버스를 타고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이상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는 어른들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엄마 어디에 누구 있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었어. 그런데 그게 어느 특정 장소 만나자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거죠. 아 지금 학교 앞에 누구 서 있었어 뭐 이런 말. 아니면 편의점 앞에 누가 뭐 사왔어, 이런 거 그냥 지나다닐 때 어른들을 만났어. 어른들을 만났는

16 센터와 같은 마을에 있는 공동육아서회적협동조합영양차별보호자들간 아이-보호자간 ○○이모 삼촌이라 호칭한다.

데 그 어른들이 무서운 어른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른이야. 그리고 본인도 인사를 해 그리고 어른들이 아는 척도 해 이거가 굉장하 큰 안도감 안정감을 주었었어요. ◆참여자 6

한 마을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려면 사람이 중요하다. 차성란(2019:123)은 마을공동체 돌봄은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마을 곳곳의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의 일부로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마을의 어느 장소에서든 아이들이 다니거나 놀고 있다면 그곳이 돌봄의 장소이며, 그 장소에 있는 어른들, 노인들로부터 생활 속 감시를 통해 안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 스스로의 생활과 아이들에 대한 감시를 구분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인사하고 지내는 마을 어른들이 마을 안에 있다면 생활 속 동네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마을 어른들이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 4. 마을공동체가 사회 경험의 장

공동의 목적에 동의하여 모인 사람들이 만든 것이 공동체이다. 마을공동체는 자발적, 주체적, 자치적 민주적 운영원리로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며 더 나은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여야 존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마을공동체는 직접적인 자녀 돌봄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이 부족하기에 사회구조를 생각하며 더 확장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교류하며 현재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현대사회의 문제적 삶을 복구할 수 있는 노력부터 다양한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사회 이슈에 연대도 하고, 이슈 관련한 실천 활동도 한다. 공동체에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로 인해 서로 돌봄이 가능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안에는 관계 맺고 연결된 마을 어른, 아이들이 포함되어 경험하고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된다. 특히 아이들은 마을 활동을 주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참여도 하는 이웃 어른, 친구 보호자, 자기 보호자를 만나며 같은 장소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기에 또 하나의 사회 경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학습

마을공동체는 혼자 극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색하고 헤쳐 가며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참여자 2의 생각에서 볼 수 있다. 아이들도 공동

체 활동을 하는 마을 어른들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될 것이다.

마을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은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더불어 잘 살 것인가. 내 스스로 잘 살 것인가인데. (중략) 빈부격차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했지만,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여자 2

####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됨

##### 소통, 교류, 협력

하나의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지향이 들어있고,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힘든 시간에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관계가 형성된다. 내 집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쉽고 편안한 관계 속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향점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과정으로 보호자도 배우며 성장하고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2는 마을공동체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보호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협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나 힘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마을을 바꿔가며 사는 협력하는 마을 어른의 삶에서 보고 배우며 알아가는 곳, 사회나 국가의 지향까지도 가질 수 있는 사회 경험의 실습장이라고 이야기 한다.

길거리 가면 알아보고 또 제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니까 더 어른들이 알아보니까 또 애들한테 뭐 제 이름 부르면서 거의 인사를 하게 되고, (중략) 이 공동체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후세대 애들에 어떤 사 이에 어떤 국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습해보고 보내는 거다. (중략) 이 공동체 사회로 인해서 어떤 체험해 보는, 아이들이 국가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질서를 만들어가고 이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지향도 있는 거지. (중략) 부모들이 충분히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자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에 맞는 걸 펼치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저는 바로 그런 힘을 애들한테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여자 2

## 결론 및 논의점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에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 조사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찾는데 있다. 본 연구는 마을에서 아이 키우는 것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하며,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 참여나 마을 활동 경험이 있는 보호자 9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연구결과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양육경험'과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양육경험'은 첫째, '보호자-교사간 협력을 통한 돌봄공동체'로 보호자, 교사간의 소통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이해확장이 되었고, 보호자들의 참여가 마을활동 참여로 이어졌으며, 보호자들간 소통기회로 자기돌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간 소통기회가 마련되는 공동체 활동으로 친구도 만들고, 재미있는 만남과 대화로 '잘 살아가기'를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을 체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센터 보호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센터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둘째,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한 배움'으로 아동들은 자기주도적, 체험중심적 활동을 통해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며, 모든 주체 간에 수평적인 관계 맺기를 노력하고 있었다. 또래 관계, 아동-교사 관계와 보호자-교사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보호자-교사 관계에서의 바람은 공동의 논의에서 정한 규율에 관한 것이다. 이후 실천적으로 센터에서 보호자들과의 회의나 활동에서 나누어야 할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첫째, 자녀돌봄에서 마을돌봄으로 확장되어 지역아동센터를 매개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마을활동을 통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둘째, '함께 돌봄'을 통한 돌봄의 분배로 부모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품앗이 돌봄이 만들어졌다. 또, 함께 돌봄으로 보호자들에게 시간이 생김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셋째, '마을이 안전한 울타리가 됨'으로 지리적 생활공간 공유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며, 이웃 간 촘촘한 관계망이 돌봄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보호해 주는 어른이 마을에 있어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마을공동체가 사회 경험의 장'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학습을 어른이나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소통과 교류, 협력으로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센터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창구 역할을 하여서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회 경험을 쌓게 하고 보호자들에게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센터가 마을공동체 확장의 토대가 되었다는 이근미(2019:109)의 결론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로 돌봄 주체들의 소통과 만남이 자기 돌봄이 되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동 돌봄 시설이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게 자치적이고 민주적 합의를 만들며 참여하는 과정에 유대와 신뢰로 발생하는 좋은 돌봄<sup>17</sup>이 보호자의 자기 돌봄과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시점은 코로나 4단계, 2000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하여 보호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공동체를 지향하는 센터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음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반면에 온라인학습으로 발생하는 센터 내 아동 간 학습격차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더불어 현재 2학년 이하의 보호자들, 또한 3학년 이하의 보호자들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부모 참여 활동이 적어져서 공동체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는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자료 분석에 있어 연구참여자 사례별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이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이 여성 보호자 중심이었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남성 보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의미를 아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또, 보호자 경험만을 연구하였기에 교사, 아이들의 경험을 포함하여 센터 전반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마을공동체 구성원에 국한된 연구로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마을사람들에 대한 연구로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였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돌봄기관의 공동체 지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적, 자발적, 민주적(자치적) 운영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교사, 보호자의 지속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공동 교육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17 좋은 돌봄은 돌봄의 사회화 측면에서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돌봄제공에 보호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

둘째, 주체적으로 보호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운영 구조로 교사-보호자, 보호자간 소통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마을에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나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활동이 기존에 단체 중심이었다면 소규모 취미나 학습 소모임, 모든 생애주기를 맞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와 셋째는 관계망을 넓히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제언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나 정책적으로나 다른 마을에서 마을 돌봄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경험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돌봄을 하며 자기돌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마을 돌봄은 차성란(2019)이 제안한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으로서 대안적 돌봄이 마을공동체 돌봄이라는 맥락과 이어진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는 내용 측면에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센터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영 방침을 만들고 유지해온 과정과 의미, 돌봄 가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새롭게 확인한 보호자의 자기돌봄에 관련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 한계에서 밝힌 교사, 남성 보호자 등 돌봄 주체와 돌봄 당사자인 마을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횡단,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을공동체 구성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나 마을공동체의 보완할 점,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인 공간에 대한 연구나 현재적 마을공동체 경험에 의한 미래 공동체 모습을 구상하는 연구가 된다면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모든 공동체 연구의 한계를 만드는 전체 사회구조와 마을 주민의 시민의식 관련 정책 연구와 연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영.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공동육아의 실천사례, 교육비평(37): 208-229. 2016.
- 김미란. 공동육아의 생태교육과 공동체적 관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 25-34. 2016.
- 김인숙. <사회복지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2016.
- 김철중·유석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일동 마을커뮤니티 공간'마실'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2권 5호 통권 47호: 155-163. 2017.
- 울타리넘어. 함께 맞는 비-마을살이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안산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작은연구사업 보고서, 비공개자료. 2018.
- 이근미.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한 요인에 관한 연구-안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임정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 경험에 관한 연구. 職業再活研究(第 27 輯 第2號) 한국직업재활학회: 1-17. 2017.
- 정승훈. 도시형마을의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대안학교에서의 언어문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비교 문화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6.
- 조미라. 성찰적 공동체형 복지실천과 여건에 대한 질적연구: 인천 계산동의 공동육아 마을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 연구, 11. 2: 35-71. 2020.
- 차성란.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3권 3호 : 109-132. 2019.
- 【기타자료】
-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비공개. 2018. 2021, 2021년 보호자 상담지.
- 울타리넘어. 울타리넘어 조직도. 2021.
-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사이트. <https://gongdong.or.kr/>.
- 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List.do>.
- 여나래 네이버 밴드.

## 연구 후기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들은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보호자들이다. 전문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잘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였고, 마을에서 자란 청년들이 보조연구원으로 함께 하여 뜻깊은 연구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를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 연구참여자에게 감사드린다.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초창기 방과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마을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 연구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좋은 돌봄을 나누며 서로 도운 모든 마을 사람들과 이 연구를 공유하고자 한다. 작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 연구 소감

**김미르** 청년연구원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다. 더불어 나에게 친숙한 공간이 연구 주제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다.

**김명주** 청년연구원 방과후를 다녔던 졸업생이다 보니 방과후 얘기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얘기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중간 중간 나오는 인터뷰는 부모님들의 얘기를 이어서 방과후를 다녔던 나와는 다른 관점의 얘기들이어서 새로웠다.

**박호진** 청년연구원 연구를 참여함으로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거 같아 뜻깊었다.

**김남주** 보호자연구원 마을에 대해,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갈 마을의 모습에 대해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영의** 보호자연구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 한걸음 떨어져 바라보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서희정** 보호자연구원 마을 사람들 덕분에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지내고 있다는 고마운 마음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함께 해 준 마을 연구원께 감사하다.

## 부록: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를 위해서 실천할 것

### 1. 돌봄단위의 지향: 공동체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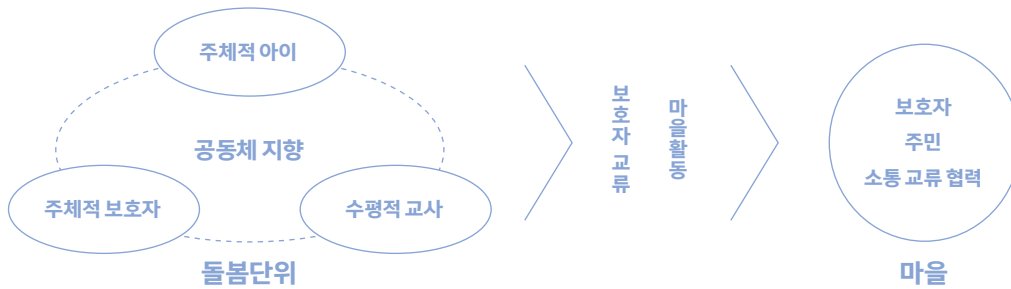
교사, 보호자의 지속된 성찰과 노력으로 주체적, 자발적, 민주적(자치적) 운영원리 유지 노력으로 다양한 공동 교육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 2. 돌봄단위의 운영구조

주체적으로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운영구조로 교사-보호자, 보호자간 소통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3. 마을에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나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기

마을활동이 기존에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소규모 취미나 학습 소모임, 모든 생애주기를 맞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 장소가 있어야 한다.





**2021 작은연구**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01

**디자인** 플랜포히어

**홈페이지** ggmaeul.or.kr

**페이스북** @ggmaeulcenter

**유튜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문의** 031.852.2299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경기  건강한 세상

 경기마을공동체지원센터  
Korea Community Support Center

